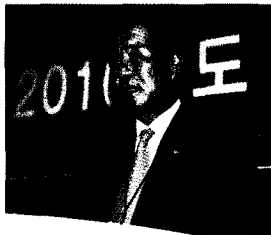


# 서울인쇄조합 2010 경영자 세미나

## 'e-book시대의 인쇄업계 대응방안' 등 발표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설악한화콘도에서 '2010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등 내빈과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경영자 세미나에서 조정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쇄의 메카인 중구에 인쇄업종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 그 위치는 방산시장을 포함한 중구 주교동과 중부시장 등 23만8천여 평방미터에 이른다”며 “향후 인쇄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 후 도시계획적 절차를 밟아 올 12월경에 서울시 최종 심의를 거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승인절차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정석 이사장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마련되는 ‘제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어서 이충원 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덤핑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히면서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엄길청 교수는 ‘선진경제사회와 family경영시대의 이해’에 대해, 김민수 성도GL 부사장은 ‘e-book시대의 인쇄업계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각각의 강연을 마쳤다. 한편 12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심신의 피로를 풀고 조합원들 간의 화합을 다짐하는 단합행사로 1박2일간의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